

아무튼 그날 우리는 모두 8시간을 걸어야 했어. 하필 도착한 날이 일요일이라 버스가 오후 5시에 끊겼거든. 갈 때는 잠깐 버스를 탔는데 원래 SNS로 찾았던 녹음이 우거진 그곳으로 가려면 잠을 산속에서 자야 할 판이라 목적지를 바꿔 그나마 근처라고 보였던, 지도상으로는 웅덩이처럼 보이는 곳으로 방향을 바꿨어. 물론 같이 간 사람들 모두 산에서 하룻밤 정도야 괜찮다는 분위기였지만 나는 속으로 이리다가 정말 큰 일이 나지 않을까? 생각했지. 여기는 거기랑 다르게 늑대가 있을 수도, 곰이 있을 수도 있잖아? 목적지로부터 집까지도 2시간을 걷고 1시간 버스를 타야 했어. 이미 세시가 넘어가는 시간대였고, 다행히 5월에는 서머타임이 이미 시작된 후라 9시까지는 밝을 예정이었어. 어쨌거나 바뀐 목적지로 가는 길에 야생말, 산토끼, 양 떼 등등을 봤어. 대체로 그들은 우리로부터 도망을 다니는데 특히 양들은 한 발짝 다가가면 두, 세 발짝 멀어져. 그나마 말은 우리에게 무관심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 나는 말이 그렇게 키가 큰지는 몰랐어. 내가 갖고 있던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더 크더라.

야생말로부터 한 시간 반을 걸어 도달한 그곳에는 커다란 호수가 하나 있었어. 거기서 스스로에 대한 보상 삼아 젤라도 하나씩을 사 들었고, 그 옆 교각 초입에 어떤 할아버지가 작은 손 망원경을 들고 눈을 갖다 댄 채 우두커니 서 있었어. 그 할아버지에게 눈길이 갔지만 나는 경계심에 흘깃 보고만 있었는데, 게임 엔피씨처럼 상관없어 보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우리한테 저기 저 새들이 보이냐고 말을 거는 거야. 힘을 주고 실눈을 해야지 간신히 보이는 새 두 마리가 사람들이 길을 건너도록 만들어진 것 같은, 네모난 돌 위에 앉아 있더라고. 그 광활한 호수 위에 말이야. 할아버지는 저 새들을 10년 동안 관찰하고 있었대. 10년이란 시간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닌데. 그 똑같은 새들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거기에 와서 앉아 있대, 함께.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똑같은 거리를 둔 채 10년 동안 셋이 그 자리에 있었을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 새들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다니 신기하지? 돌아와서,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먼저 말을 걸어준 호의에 나도 예스니 왓이니, 해브피피 분사를 써 가면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다른 언어로 한 말이라 잘 기억나지는 않네.

그 정도로 돌아갔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더 깊이 그 호수를 둘러싼 숲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거야. 비도 주춤, 주춤 내리기 시작했고, 모자를 쓰는 것으로 부족하고, 우산을 쓰기에는 애매한 그런 비. 서서히 안경 렌즈에 물방울들이 고여 앞에 있던 사람들이 굴절되고 가려지는 정도. 그렇게 두 시간을 더 걸었던 거야. 비가 내리면 녹색이 숨을 쉬듯 푸르러지고 나무에 붙은 이끼에 시선이 갔어. 조금은 다른 얘기지만 이끼에 코를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면 그게 숲으로 보일 때가 있어. 다시 눈을 떼고 한 걸음만 발을 떼면 숲이 손바닥만 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이건 종종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개가 알려준 사실이야. 그 길의 날씨는 푸르스름했고 갈대 같은 걸 본 장면이 떠오르는데 진짜 그랬던 건지 그런 잔상만이 남은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 나는 이 정도면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유일하게 지도를 보고 있던 얘는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랬어. 돌아가는 길이 앞에 남은 길보다 더 멀어진 것이지. 중간에 작은 다리도 나오고, 어린이들도 본 것 같은데 5시, 6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주변에 사람 한 명이 나타나질 않더라. 우거진 숲속을 지나며 마법사의 것 같은 지팡이 하나를 주워 땅을 짚고 다녔어. 지팡이를 짚고 다니다 보면 마치 그게 내 다리인 것처럼 지면의 축축함이 나무 끝을 타고 손에 전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 지팡이 나무에도 이끼가 붙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해. 지팡이를 짚으며 여전히 우리는 서로 이끼처럼 붙어서 계속 길을 갔지. 이미 양말까지 젖어버렸고 내 휴대폰은 꺼진 지 오래됐어. 게다가 다른 한 명의

것도 꺼지면서 길을 잃지는 않을까, 불안함이 커져만 갔어. 지도 어플도 잘 작동하질 않았고. 그렇게 세 사람은 한동안은 말없이 걸었어. 오른쪽에선 물 냄새가 왼쪽에는 거대한 나무들이 펼쳐진 어딘가의 길을 걷다가 어느 순간, 셋 중에 한 명이 왼쪽에 길이 있을 것 같아며, 저 언덕에 올라가 볼까? 했어. 그 언덕이 낮아 보인대. 물론 속으로 나는 그렇게 낮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날 본 키 큰 말처럼, 실제는 예상보다 항상 좀 더 크니까. 걸음걸이가 빨라서 내심 ‘오르다 말겠지?’ 하며 뒤따라갔어. 역시 경사가 가파르더라. 일단 거기는 길이 아니었어. 풀을 헤집고 올라갔거든. 넘어질까, 풀과 돌을 쥐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길이었어. 그러다 다른 한 명은 “이제 못 올라가겠다.” 하며 주저앉았어. 나는 나까지 멈춰버리면 올라가는 재랑 멈춰버린 얘. 둘 중 하나를 나중에 찾지 못하게 될까, 그 사이에서 가늠질 하며 계속 올라갔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정상에 도착했더라고. 다시 말하는데 그 야생말처럼, 그 호수처럼 그 언덕 역시 거대한 곳이었던거든. 귀에는 “멋지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나한테 정상에서 본 풍경은 ‘멋짐’보다는 ‘황폐함’에 가까웠던 것 같아.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풍경 중에 도로도, 빌딩도, 작은 집 한 채 보이지 않았어. 온통 녹음뿐이었던거든. 우리가 있던 언덕처럼 맞은 편에는 녹색이 깔린 덩어리들이 보였어. 내가 느낀 작은 절망의 이유에는 내가 중간에 멈춰버린 개 걱정을 계속하고 있었던 탓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 위에 뜬 무지개를 잠깐 감상하다가 개 이름을 소리 질러 외쳤어. 한 다섯 번째쯤 됐으려나? 슬슬 좌절감이 밀려오려는데 내내 우리 뒤를 따라오던 양 한 마리가 “메~” 하고 내 오른쪽 저편에서 아주 작게 우는 거야. 그 소리가 처음엔 사람인지 양인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았어. 세 번째 정도 소리가 들릴 때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언덕 절반에서 멈췄던 개가 작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그제야 나는 맘을 놓고 다시 구름이 지나가고 그 사이로 햇볕이 드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 멈췄던 그 친구는 나는 지나쳤던 거기에서 한참 동안 허공과 지면 사이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여유로움이 공포로 바뀌어 가던 순간, 우릴 찾아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대.

그 당시에 나는 종교가 없었지만, 기도하는 법만큼은 연습하고 있었어. 기도는 침례교 방식을 따랐어. 나는 대뜸 바위에 기대있거나 경탄하는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는 한번 기도를 해야겠다고 말했어. 그저 그냥 누구나 할 법한 뻔한 그런 내용이었지. 숨을 가다듬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원래 있던 길로 복귀한 이후로 셋 다 다른 것보다도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 점점 새벽이 다가왔고, 눈앞 대체로의 것들은 실루엣으로만 보였어. 그렇게 붉은 노을을 아직은 본 적이 없어. 그 붉게 펼쳐진 평원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초입에 봤던 말과는 다른 실루엣을 봤던 것 같아, 그런 장면이 생각나. 그렇게 깜깜함 속에 겨우 맞는 길을 찾았지. 차로에서 마주친 어떤 아저씨는 말을 걸었어.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기꺼이 돈을 건넸어. 우리가 올랐던 그 언덕이 아니었다면 그 아저씨는 집으로 돌아갈 걱정을 하며 새벽녘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을지도 몰라.

아무튼, 돌아와서 다시 그곳을 지도로 찾아보고 있어. 그 지대는 호수가 아니라 관리가 잘 되어있는 저수지더라고. 나는 그날 우리가 대자연 속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게다가 지금 이곳의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데, 그다지 반갑지는 않은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는 카페 테이블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가 있던 곳이 아주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거야. 어쩌면 그 호수 위에 새들도 할아버지를 10년 동안 점처럼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세계가 어찌나 작아졌는지!